

2016년 11월 21일,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노인회관, 문경미 조사.
양익근(여, 1930년생, 제주시 해안동)

[제보자] 우리 어릴 때 콩씨애기 풋씨애기 옛말은 몇 꼭지 들어났주게.

[조사자] 그거 애기헤 봅서.

[제보자] 콩씨애기 풋씨애기 허민 이제 이녁 난 애기는 풋만 삶으멍 주난 말제는 막 풋만 주멍주멍 허난. 곱질 안 허고. 다슴애기는 콩만 삶으멍 준 거라. 콩만 삶으멍 먹 으난 얼굴이 비록 사람이 경 허난. 이젠 풋씨애기허고 콩씨애기허고 우리 사워허 게 갑주게 헨 가난. 강 이제 성님허고, 성님이엔 현 건 큰어멍 아기주게. 등 밀 어주켄 행 영 행 등밀단 과락 물더레 등 밀려부난 죽어부난 오난 걸려불언. 그런 말은 들어났어.

[조사자] 그거 과락 밀려분 건 아까 남선비 애기랑 비슷허우다.

[제보자] 옛날 콩씨애기 풋씨애기로 들어났지. 그거하고 툇 거. 등 밀어주켄 허당 자락 밀 어부난 빠전 말젠 물에서 죽언 꽃으로 환생헿 둥둥 떠 잇이난. 아이고 꽃 이뿌덴 헨. 그 꽃을 꺾어 완 문전에 돌아멧 놔두민게 들어 갈 때에 머리 톱 메고. 나을 때 박 메고.

[조사자] 들어갈 때 뭐 허여?

[제보자] 꽃이 고우난 문전에 돌아메난. 이쁘니까. 콩씨애기이 죽은 것이 꽃으로 환생헿 어. 게난 그 풋씨애기가 들어가갸민 그 콩씨애기가 머릴 그냥 족은어멍 난 거 영 허고(머릴 잡아 채는 것) 나을 때민 영 막 허연. 말제엔 베려보난 큰어멍 난 애 긴 줄은 모르고. 그런 말은 들어났어.

• 핵심어 : 콩씨, 풋씨, 다슴애기, 환생